

신민영 선생님의 「에스타오의 2.28 사건 재현의 변주-40년 간격의 두 작품을 중심으로」는 섬세한 작품 분석을 통해 2.28 사건과 관련된 에스타오의 작품을 역사적 사실의 재현이나 고발이라는 차원을 넘어 권력과 의미의 관계를 문학적으로 사유하는 지평으로 확장하는 발표문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차가 존재하는 두 작품을 섬세하게 독해하신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삼월의 마조」에서 화자인 뤼푸가 N시에서 발생한 사건의 배경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로 진술(관방의 공산당 개입 서사와 타이완 민중의 정항 서사)함으로써 단일한 서사로 봉합해버리는 방식을 통해 사건의 불확정성을 만들어냈다는 지적, 그러한 서사전략이 관방 매체였던 『대만신생보』 문예란에 게재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설명되고 있는 지적, 더 나아가 사건의 불확정성이 생존 이후의 정동과 애도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해석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붉은 신발」에서는 서사적으로 갈무리되지 않은 채, 기묘한 스케치로 남겨졌던 간판위이라는 인물에 집중하신 부분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백색공포를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나 탄압만이 아니라, 해석권을 장악하고 개인의 삶과 욕망을 재배치하는 권력의 작동방식 자체였음을 시사함으로써 2.28을 역사적 사건이라는 시간성, 그리고 대만인이라는 정체성에만 갇히지 않은, 권력이 사회 전체의 가능성을 재배치하는 구조적 매커니즘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해석 또한 참신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작품 독해의 즐거움을 선사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그리고 선생님의 작품해석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1. 제목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40년간의 시간차를 두고 있는 두 작품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두 작품이 비교되는 이유가 조금 더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히 같은 주제를 공유하는 두 작품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요청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3월의 마조」에서는 2.28를 이렇게 형성화했는데, 왜 「붉은 신발」에서는 이렇게 형상화했는가, 그 계기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한하면, 선생님께서는 낭만주의에서 사실주의로의 변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혹시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청해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 창작과 중국어 창작 간의 차이는 영향이 없었을까요? 1949년 발표된 「3월의 마조」는 설명하신 바대로, 일문으로 작성된 뒤, 천셴팅의 번역으로 게재된 작품입니다. 반면, 1988년의 「붉은 신발」은 에스타오 본인이 직접 중문으로 창작한 작품인데, 이러한 이중언어 상황이 2.28를 다루는 두 작품의 차이를 해석하는 데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특히, 『橋』 부간의 경우, 외성인 작가와 타이완 작가 사이의 교량 역할을 기대하며 발간된 측면도 있고, 타이완 작가의 일문을 외성인 출신 작가들이 중문으로 번역하면서 의도된 가필과 오역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橋』 부간에서 펼쳐진 ‘타이완 신문학운동 논쟁’에서 번역자의 윤패를 의심하고 있는 천팡밍의 지적). 낭만주의에서 사실주의로의 변화가 혹시 언어의 문제, 혹은 번역의 문제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두 작품은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해 타이완으로 넘어오기 직전과 장기간 지속된 계엄이 해제된 직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3월의 마조」 같은 경우에는 1946년 일문 사용이 금지된 이후 창작활동을 하지 않았던 예스타오가 오랜 기간의 침묵을 깨고 발표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일본어 원본의 확보 여부, 번역 및 번역가 연구). 선생님께서는 이 글의 목적을 예스타오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문학적 형상에 초점을 맞추시겠다고 전제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요소들이 이론의 여지를 제공하지는 않을지 고민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무엇보다 물음표로 가득한 예스타오의 작품과 그로 인해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선생님께서는 「3월의 마조」가 정화와 회복이라는 제의적 구조를 서사에 차용함으로써 문학이 위무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고, 그 중심에 낭만주의적으로 형상화된 마조(니시카와 미쓰루의 영향을 받은 ‘창기-아내-마조’의 모티프)가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정치적 기호로 사용하기보다 정동의 위무와 생존의 서사”로,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위령제의 하나로 해석하신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2.28이라는 집단 폭력을 직접 재현하는 대신, 낭만주의적 환상과 유희주의적 이미지 속에 사건을 우회적으로 봉합”하며, “마조는 이때 저항의 기치라기보다 생존을 가능케 한 희생적 여성 형상으로 제시”되고, “사건의 구체성은 몽환적 정조 속에서 희석”(7쪽)된다고도 평가하셨습니다. 사실, 2.28이라는 배경지식을 괄호치고 이 소설을 읽어보면 낭만적 혁명의 열정에 사로잡힌, 미숙한 혁명가의 반성과 갱생의 서사로도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지도자급의 혁명가로서 이번 실패에 대한 반성-혁명적 열정에만 사로잡혀 민중들의 불만을 냉철하게 조직화하지 못한 점, 영웅주의에 대한 반성, 어느 부자의 일화에서 보이듯이 혁명의 대의보다는 개인의 사적이익에 매몰된 군중,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된 후 자신의 이름을 알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발언, 죽은 아내의 비참한 생활을 분석하면서 깨달은 소박한 이론, 즉 부활과 갱생의 이미지가 마지막에 대지의 여신이자 풍요의 여신으로 등장하는 마조와 중첩되는 양상, 좌익서적을 두루 섭렵했다고 하는 예스타오에 대한 평가 등). 무엇보다 「3월의 마조」는 독자에게 수많은 물음표를 던진다는 점(왜 뤼푸는 E향촌에 가려고 하는가? 왜 E향촌이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가? 등)에서 볼 때, 「3월의 마조」가 2.28을 배경으로 한다는 기존의 해석들이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혁명의 불안전성을 반성하면서 마조와 함께 다시 태어날 봄의 대지처럼 재차 희망의 불씨를 꽃피우며 결말을 맺는 이 소설과는 다르게 「붉은 신발」은, 만약 이 소설의 간판위에 화자의 분신으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그 혁명의 회오리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예술과 생활의 괴리로 한탄하는 이 서사적 스케일의 축소는 기존의 해석(억울함을 호소하는 회고담)으로도 독해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해석상의 난맥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40년이라는 단차를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개연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3월의 마조」에서 「붉은 신발」 사이에 “국가 권력이 어떻게 해석을 통해 현실을 구성하고 주체를 호명했는지를 드러내는 서사적 실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화를 야기한 요소들이 무엇이었는지 설명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 최말순 선생님이 분류하신 2.28 관련소설의 역사화 양상과는 다른 관점에서 예스타오의 두 작품을 해석한 부분은 이 논문이 달성한 학문적 성취라고 여겨집니다. 「3월의 마조」와 「붉은 신발」은 확실히 2.28을 형상화한 다른 소설들과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두 소설은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사회고발, 외성인과 본성인 간의 차별, 혹은 치유와 화해의 메시지

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만약 예스타오의 2.28 관련 소설들이 “역사적 사건의 재현을 넘어” 권력이 사회 전체의 가능성을 재배치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이었음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기존의 제노사이드를 ‘재현’하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특히, 이번 학술대회 주제와 관련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예스타오의 작품에 대한 선생님의 분석이 소위 재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의 지평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토론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